

# 장수군, 일자리 정책 '탄탄'

###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성과 나타나

장수군이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책으로 양질의 지역 일자리 및 청년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지난 11일 군에 따르면, 군은 총사업비 16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청년창업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을기업·사회적기업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도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와 소득 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

가장 먼저, 지난해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점돼 사업비 8억 원을 확보, 로컬 JOB센터 운영을 통해 구인구직, 취업지원 및 지역혁신프로젝트도·농상생형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JOB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7월까지 396명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농촌일자리에서 6,097명을 채용·연계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을 실시, 23개 사업장에 29명을 고용했으며, 청년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예비 창업을 원하는 12명에 1억 8,400만 원을 지원해 창업에 필요한 임대료, 홍보 및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했다.

이에 더해 △장수 청년비상 일자리 지원사업 △장수 청년상생 네트워크



장수군이 지난 2일 2023 전국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 우수상을 수상했다.

△청년 내대 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창업공간 지원사업 △청년취업지원사업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 내 청년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고용률은 78.3%로 전북 1위, 전국 4위를 달성했으며, 청년고용률은 39.3%로, 2021년보다 107.4%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 같이 장수군은 인구소멸에 직면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업·

농촌 일자리사업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신종업종 및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맞춤형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 점을 인정받아 지난 8월 2일 2023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공시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그 노력을 인정받았다.

최훈식 군수는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더욱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며 "청년들이 장수군에서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군, 음식점 위생수준 높인다

### 위생등급제 컨설팅 진행

무주군이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음식점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로, 관내에서 신청을 받은 후 자격요건(최근 3년간 식중독 발생이력 없고 영업신고 면적 이외 음식물 보관 및 전열,

조리, 판매 등이 이뤄지는 공간이 없는 곳)에 맞춰 선정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3곳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무주군은 오는 10월 말까지 참여 업소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전문 컨설팅 업체가 방문해 위생등급제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과 평가표에 따른 부적합 항목의 개선 사항 등을 제공한다. 컨설팅 후에는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

원의 평가를 거치면 된다. 결과에 따라 '매우 우수', '우수', ' 좋음' 3단계로 등급이 부여되며 지정업소에는 위생등급 지정서와 표지판을 제공하고 2년간 지정업소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핸드워시, 살균소독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이승하 과장은 "천만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는 전국 10대 매력도시 무주의 위상에 걸맞은 외식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음식점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백운동계곡 통제 2024년 10월까지 이어져

### 국립지리권산림치유원 조성 따라

진안군은 11일 여름철 관광명소인 백운동계곡 일대가 국립지리권산림치유원 조성공사로 인해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4년 10월(개원 예정일)까지 통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산림청 주관으로 산림복지단지인 국립지리권산림치유원 조성 공사가 2021년 12월에 착공돼 2024년 8월 까지 진행된다고 밝혔다.

통제구간은 백운동 산림욕장 부근임도 입구부터 백운동계곡, 덕태산, 선각산 일대(백운면 백암리 산1-2번지 일



원)이며 피서와 관광 목적의 계곡 이용을 비롯해 차량 및 도보 통행이 전면 통제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저탄소 농산물 인증 확대

### 친환경·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받은 농가 대상 취득 지원

무주군이 안심 먹거리 생산에 주력한다. 관내에서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무주농협 복숭아공선회 24농가와 구천동농협 사과공선회 67농가를 대상으로 저탄소 농산물인증 취득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내용은 농가 교육 및 인증 대상 공모신청서 작성, 농자재 데이터 수집과 인증심사 대응 등 인증 취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이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농촌육성팀 윤수진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인증을 취득한 농산물은 통합마케팅조직인 무주반딧불조합공동사업법인을 통해 대도시 대형마트에 납품하게 된다"며 "저탄소 농산물인증 확대가 결국, 무주 반딧불농산물의 신뢰감을 높여 안정적인 판매처를 확보·유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어 "안심먹거리에 대한 관심과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가 건강한 먹거리라는 소비자 인식이 확대되는 사회적 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농가 소득증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저탄소 농산물인증은 친환경 또는 농산물우수관리(GAP)를 받은 농산물 중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를 줄인 농산물에 부여하는 농식품 국가인증 제도로, 무주군에서는 현재 3개 단체 111농가 2개 품목(사과, 포도)이 인증을 받은 상태다.

무주군은 지속적으로 우수한 저탄소 농산물인증 확대와 판로 확보에 주력해 농산물을 차별화하고 농업인 소득 증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 주민세 1만3000여건 2억7700만원 부과

진안군은 8월 주민세 개인분 1억 3,300만원(1만2,182건), 사업소분 1억 4,400만원(1,318건) 등 총 2억7,700만원(1만3,500건)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군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갔다.

주민세 과세기준일은 7월 1일 현재 진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사업소분의 경우 현재 진안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부과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기준이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어 이에 따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었다.

또한 군은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과세내역을 바탕으로 사업소분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으며, 기재된 세액을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주민세는 오는 31일까지 금융기관 방문·자동이체·가상계좌·카드·CD/ATM,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내 납부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농특산물 판매전 부스 접수

장수군이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에서 농특산물 판매전 부스 운영을 희망하는 농가 및 희망 업체 신청을 받는다.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RED 및 우수농산물 판매전'은 장수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홍보·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RED 농산물과 우수 농산물·가공품으로 나눠 판매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운영부스는 약 31개이며, 사과, 오미자 등 빨간색 농산물인 RED 농산물 부스 11개, 장류, 한과류 등 가공식품 부스 기타 우수농산물 부스 20개를 운영할 방침이다.

참가자격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농업인 및 가공업을 하는 자로 본인이 생

산·가공한 물품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지이며, 카드 단말기 소유 업체만 참여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8월 14일부터 25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에 필요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조장호 농산유통과장은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지역의 신선하고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많은 관광객에게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많은 농가 및 업체들이 이번 RED 및 우수농산물 판매전'에 신청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제17회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는 다가오는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장수 의암공원 및 누리파크 일원에서 펼쳐진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택시요금 17일부터 인상

진안군 택시요금이 오는 17일부터 1,000원 오른다. 이는 2019년 이후 4년 만의 요금 인상이다.

이번 요금 인상은 전라북도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라북도 택시 운임·요금 적용기준의 인상을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

진안군의 조정된 요금은 기본거리 2km 유지하면서 기본요금 4,000원에서 1,000원을 인상해 5,000원으로 하고, 거り요금은 137m당 160원에서 134m당 167원으로, 시간요금은 33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7원으로, 심야할증(00:00~04:00)과 진안군을 벗어나는 시계 외 할증은 현행과 같이 20%로 변동이 없다.

진안군은 요금 조정에 따른 택시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현수막 게시, 각종 회의자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전개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주군, 고등학생 대상 대학견학 프로그램 진행

무주군이 관내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1박 2일간 대학견학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교육시설 견학과 체험학습을 통해 자신감을 불어넣고 희망대학 진학 및 학과 선정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무주고교와 살천고, 안성고 학생 61명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다.

첫 날 서울대학교에 도착한 학생들은 서울대 재학생인 무주고 출신 라혜인 학생(식품영양학과 3학년)과 김혜연 교사(설천고)로부터 멘토링 교육을 받고 전철형 학생회장으로 부터 '공부 잘해야 하는 이유'에 대한 특강도 들었다. 또 규장각을 비롯한 미술관 등 학교시설을 둘러봤다.

11일에는 성균관대학교와 전북대학교에도 둘러 학교 급식을 하고 강의실과 각종 시설 등 캠퍼스를 돌아보며 대학생활을 미리 경험했다. 학교 측에서 마련한 대학입학 설명회에도 참여해 자세한 설명을 듣는 등 전문을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